2016년 1월 3일 꼬빌리시교회 다민족 연합예배 설교문 – Ondřej Kolař 목사

본문: 요한복음7, 14-18

Jan 7, 14-18 Když už bylo uprostřed svátků, vstoupil Ježíš do chrámu a učil. Židé se divili a říkali: „Jak to přijde, že se vyzná v Písmech, když ho tomu nikdo neučil?“ Ježíš jim odpověděl: „Mé učení není mé, ale toho, kdo mě poslal. Kdo chce činit jeho vůli, pozná, zda je mé učení z Boha, nebo mluvím-li sám za sebe. Kdo mluví sám za sebe, hledá svou vlastní slávu; kdo však hledá slávu toho, který ho poslal, ten je pravdivý a není v něm nepravosti.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 Sestry a bratři, spolu s pastýři, mudrci, Simeonem, Annou a dalšími jsme před týdnem přivítali našeho Spasitele.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 안나와 더불어 우리의 구세주 나심을 기뻐하였습니다.

Čteme-li příběhy o Ježíšově narození, zdá se nám, že se snad na světě nenašel nikdo, kdo by se z toho neradoval a nechválil Boha.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Vždyť přišla záchrana pro všechen lid.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Otevíráme ale další stránky bible a z vánoční jásavé nálady se postupně probouzíme do světa, jaký skutečně je.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다음 페이지들을 읽을 때, 성탄의 들뜬 분위기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기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Biblická čtení, která církev stanovila na povánoční neděle, nám to důrazně připomínají.

교회가 성탄 후의 말씀으로 정해 우리에게 늘 강조해 왔던 말씀은,

Ježíš vystupuje na veřejnosti, představuje svůj program, vysvětluje, co znamená ta spása, kterou přináší.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시며, 그가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가 가져오실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A v tu chvíli se do všeobecného nadšení mísí rozpaky, rozladěnost a odmítnutí.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혼란과 배척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2. Ježíš vchází do chrámu a učí.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Nedovídáme se ale, co tam říkal.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Pravděpodobně vykládal Písmo svaté.

아마 예수님께서는 성경말씀을 해석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Ale není vůbec jasné, čím byl jeho výklad neobvyklý či provokující, a zda vůbec takový byl.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무엇이 신령한 것이었는지, 무엇이 영혼을 뒤흔들었을지,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나 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A právě to je příznačné: o obsahu jeho řeči se tu nemluví, protože ji asi nikdo moc pozorně neposlouchal.

아니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rotože posluchačům nešlo o obsah Ježíšovy řeči, ale o Ježíše samotného.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사실 자체, 즉 가르치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Totiž: o jeho autoritu a oprávnění.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Není důležité, co učí, ale že vůbec učí!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은 무리들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그가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Odkud vlastně přišel? Kdo ho zná? Přesněji řečeno: kdo z nás, učenců a znalců Písma, ho zná?

예수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그를 아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우리 중에 그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Vždyť ten člověk nemá žádného učitele, žádnou školu, žádný diplom z prestižní univerzity.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를 가르친 선생도 없고, 그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어느 유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To bychom o tom přece museli vědět! Jako by se na vědeckou konferenci omylem zatoulal nějaký samouk. Toto není nikdo z nás, a proto nemá mezi námi co dělat, bouří se profesoři. Ať se raději zpátky zařadí do zástupu, mlčí a poslouchá, co říkáme my.

이러한 점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주변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3. „Slepí vidí, chromí chodí, malomocní jsou očišťováni, hluší slyší, mrtví vstávají, chudým se zvěstuje evangelium (Mt 11,5)“ – tak kdysi Ježíš shrnul své působení.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11,5) – 예수님께서 언젠가 당신이 하실 일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Rád bych k tomu přidal ještě jednu věc: Sebejistí, panovační a arogantní jsou znejišťováni, otřásá se jejich sebedůvěra a propadají panice.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위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 외에 자기확신에 차 있는 자들, 군림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두려움으로 떨게 되며, 저들의 자기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저들의 교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Krátce po Ježíšově narození dá vystrašený vládce Herodes pro jistotu povraždit všechny nově narozené syny, protože co kdyby se z některého z nich vyklubal nový král.

구 주 탄생 후 겁에 질린 헤롯왕이 그 무렵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왕은 태어난 남자 아이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A také na konci Ježíšova příběhu bude velkou roli hrát zbabělost mocných, hlavně židovských velekněží a Piláta Pontského, kterým Ježíš narušuje zaběhané politické a náboženské pořádky.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에도 볼 수 있는데, 유대 대제사장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 종교적 질서가 파괴될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V našem oddíle Ježíš nabourává systém vzděláván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관례를 깨고 계십니다.

A to je stejně nebezpečné, jako kdyby Ježíš chystal státní převrat.

그리고 이는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Dovolí si mít vlastní názor, nezávislý na učitelích, a ještě tento názor veřejně šíří.

이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방임하는 것이요, 율법사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이런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4. Každý totalitní režim se snaží ovládat myšlení svých poddaných.

모든 전체주의 정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그들의 통제 아래 가둬 놓기를 원합니다.

Samozřejmě marně, protože lidské myšlení nelze mít nikdy zcela pod kontrolou.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le je možné kontrolovat alespoň mluvení a učení.

그러나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V minulosti to dělala také církev.

과거 교회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Někteří lidé se zmocnili bible a prosazovali její jediný výklad, který upevňoval jejich moc na úkor ostatních.

몇몇의 사람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만의 고유한 특권을 만들고 배타적으로 그러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Později se bible se stala nástrojem, jímž se obhajoval rasismus, kolonialismus či otroctví.

나중에 성경은 인종차별주의와 식민주의, 노예제도를 옹호하는데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Po dlouhou dobu měl patent na správný výklad bible bílý muž a evropská kultura.

오랫동안 백인과 유럽문화가 성경에 대한 해석의 특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Jen pozvolna se prosazovalo přesvědčení, že také obyvatelé Afriky, Asie či Jižní Ameriky mají právo porozumět evangeliu po svém.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대륙 사람들도 복음을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Mocným v církvi se díky Bohu nikdy nepodařilo trvale umlčet lidi, kteří vykládali bibli bez ohledu na oficiální nauku.

하나님께서 더 이상 권세 잡은 몇몇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Boží slovo nelze spoutat, protože Duch svatý vane, kudy chce, a otevírá Písmo svaté každému člověku: bílým i černým, bohatým i chudým, mocným i bezmocným.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 듯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 잡은 자들이든 일반 대중이든,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뜻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5. „Mé učení není mé, ale toho, kdo mě poslal“ – tak Ježíš odpověděl svým protivníkům.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Totiž: Bůh sám ho poslal. Jeho učení je přímo od Boha.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Jeho učitelem je jeho nebeský Otec.

예수님의 선생님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Proto nepotřeboval žádné učitele, školy ani diplomy.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도, 학교도, 학위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Toto Ježíšovo prohlášení muselo jistě působit velice troufale.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분명 매우 당당하게 행해져야 했습니다.

Ale Ježíš ve skutečnosti nechtěl sám sebe vyvýšit nad ostatní znalce bible.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율법 선생들보다 위로 높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Mnohem spíše sám sebe snižuje.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낮추십니다.

Nejde mu o jeho vlastní moudrost a vzdělanost. Pouze předává, co přijal od Boha.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과 지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Svým mluvením a jednáním nechtěl sám sebe proslavit a založit třeba novou školu či teologický směr.

예수님은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신학적인 의견을 개진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Chtěl pouze oslavit Boha samotného.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6. „Kdo mluví sám za sebe, hledá svou vlastní slávu; kdo však hledá slávu toho, který ho poslal, ten je pravdivý a není v něm nepravosti“ - tak uzavírá Ježíš svou obhajobu.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십니다.

Ježíš to formuluje obecně, a tak můžeme toto pravidlo vztáhnout také na nás.

예수님은 어떻게 참될 수 있는지, 참된 내용이 담겨질 형식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Co je pravdivé učení?

무엇이 참된 앎입니까?

Obvykle máme za to, že pravdivá je ta výpověď, která se shoduje se skutečností.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술이 실재와 일치할 때, 진술이 실재와 부합할 때, 진술이 실재를 적중시킬 때, 그것을 진리 곧 참이라고 합니다.

Ale když hovoříme o Bohu, je to jiné.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술로 적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Bůh není žádná skutečnost tohoto světa, kterou bychom mohli prozkoumat.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대상처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재,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십니다.

Ježíš stanovuje jiné kritérium pravdivosti.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참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Pravdivé svědectví o Bohu se pozná podle toho, jestli jím oslavujeme sami sebe nebo Boha.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증거, 하나님에 대한 참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에 따라 드러납니다.

Jestli svým učením obhajujeme vlastní moc, anebo se jím klaníme před Boží vládou nad světem.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됨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니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Jestli si svými slovy zajišťujeme své místo pod sluncem, anebo uznáváme, že Bůh dává prostor i našim bližním.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됨이 드러납니다. (이는 마치 사랑 또는 진리는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7. „Sláva na výsostech Bohu“, volali andělé při Ježíšově narození.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송하였습니다.

Tím také předznamenali celou Ježíšovu cestu.

천사들은 이로써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Stejnými slovy vítali lidé Ježíše také na konci jeho cesty, při jeho vjezdu do Jeruzaléma.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 같은 찬송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Ježíš nezvěstoval sám sebe, ale Boží království.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Nehledal vlastní slávu, ale Boží oslavení.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Neukazoval na sebe, ale nad sebe. A proto byl pravdivý.

당신이 아니라 당신보다 큰 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A tak chceme-li být pravdiví my jako křesťané, musíme ve svém mluvení a jednání neustále ukazovat nad sebe.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보다 큰 분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Kdykoli církev hledala vlastní slávu, moc a bohatství, přestávala být pravdivá, protože přestávala být Boží.

교회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고, 힘을 갖길 원하고, 부요케 되길 원할 때마다, 교회는 참되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요케 하는 것을 그만 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Sama sebe postavila na Boží místo, a tím Boha odsunula do pozadí.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를 세우고 높일 때, 이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을 교회의 뒷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Svou vlastní slávou zaclonila slávu Boží.

스스로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Sama se postavila jako oddělující a odhánějící zeď mezi Boha a člověka.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벽을 세웠습니다.

To se může stát i dnes.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Církev, která krouží kolem sebe a stará se jen o to, jak sebe samotnou uchovat či ještě více rozšiřovat, církev posilující svůj vliv, církev, která má za cíl zase jen sebe samotnou - taková církev není církví pravdivou.

교회가 스스로를 돌보고 유지하는 데만 힘쓴다든지, 단지 자신의 영향력만 강화 또는 확장한다든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목적이 된다든지 하면, 이런 교회는 참되지 않습니다.

Může třeba mluvit o Bohu korektně, a přece není věrohodná, protože nepatří Bohu, ale jen sobě samotné.

물론 이런 교회도 하나님에 대해 참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속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8. Sestry a bratři, i my máme mluvit o Bohu.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Zde v Kobylisích to děláme mnohohlasně, jako Češi, Korejci, Japonci a příslušníci jiných národů.

여기 꾜빌리시 교회에서 우리는 체코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Každý trochu jinak, s různými důrazy, s různými odstíny.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다르게, 강조점을 약간 다르게, 약간 다른 뉘앙스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A samozřejmě nedokonale a vždy s rizikem omylu.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늘 오류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Když ale naše řeč bude vyvyšovat nikoli nás samotné, ale Boha, budeme přesto pravdiví. Před Bohem i před lidmi. Amen.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되게 됩니다. 아멘

(번역: 김영만 선교사)